

헤-겔辨證法과 맑스辨證法과의 關係 (一)

헤-겔과 唯物辨證法-(□)

쎄-쑤링

金亨後

□□로 한다고『맑스』는 問題에 關한 만흔 知識을 가지고 『헤-겔』의 行動의 □□가 되어있는 幻想的 現實性을 背後의 일으는 곳에 現實性의 運動이 었지 하여 일어나는가를 說明하였다. 이 點에 잇서 靑年『맑스』의 勞作은 非常히 興味잇는 것이다. 이제 나는 나의 이 생각을 確立하기 爲하여 □□ 引用하여 보려한다.

『맑스』는 말하되 『헤-겔』에 잇서는 具體的 內容 現實的 規定은 形式的 □□로서 出現하며 完全히 抽象的인 形式規定이 具體的 內容으로서 出現하고 있다. 國家의 諸 規定의 本質은 이러한 諸 規定이 國家의 諸 規定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自己의 가장 抽象的인 形式에 잇서 이러한 諸 規定이 論理的 形而上學的 諸 規定으로서 觀察하게 되어있다.

興味の 中心은 法律哲學의 領域에 있다. 『헤-겔』의 哲學的 勞作은 抽象的 思惟를 政治的 諸 規定의 具體的 內容을 가지고 □□하지 안코 現在의 政治的 諸 規定의 內容을 蒸發식하며 또 그것을 抽象的 思想에 □□化식하는 곳에 있다. 그곳에 哲學의 □□라고 하는 것은 事實의 論理學이 아니라 論理學의 事實이다. 論理學은 國家의 正當性을 말하기 爲하여 必要한 것이 아니라 國家가 論理學의 正當性을 말하기 爲하여 必要하다. 『맑스』는 말하되 『헤-겔』에게 잇서는 現實的 存在는 抽象이며 抽象이 現實的 存在이다라고하는 것 또 헤-겔이 實在的 本質을 그 抽象的 形式에 잇서만 純粹思惟의 卽 抽象的 思惟의 抽象的인 本質 及 外化로서 把握한 것을 不斷히 說明하고 있다. 맑스는 말하되 『헤겔에게 잇서서는 本質, 對象이 恒常 抽象的 本質인 것과 가티 主觀도 恒常 意識 或은 自己意識이다. 쎄는 좀 더 正確히 말하면 對象은 恒常 抽象的 意識으로서 나타나며 人間이 自己意識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다』고 맑스는 말하되 헤겔의 理解한데서 思想의 抽象的 諸 形式은 모든 內容에 □□하고 잇스며 모든 內容에 對하여 差別이 업다. 웨-그런가하면 그것

들은 現實的 自然 及 現實的 精神으로부터 斷切되어있는 까닭이다. 『이 境遇에 헤-겔에 잇서 그의 思辨的 論理學 가운데 되어잇는 □□의 □□의 方法은 一定한 諸 □□ 思惟의 一般的 不變的 諸 形式이 自然 及 精神에 對한 獨立性에 잇서 人間的 本質 搾아서 人間的 思惟의 普遍的 外化의 必然的 結果이며 그런 故로 헤-겔이 그것들은 抽象□□의 □□로서 抽出한 곳에 잇다』 맑스는 말하되 헤-겔에 잇서서는 有는 本質에 依하며 本質은 □□에 依하며 □□은 絶對理念에 依하여 各各 止揚된다. 그리하여 絶對理念은 다시 自然에 依하여 自己를 止揚한다. 自己를 抽象으로서 把握하는 抽象 卽 絶對理念은 抽象이 無인 것을 알고 잇다. 『絶對理念은 自己 卽 抽象을 拒否치 안하면 안된다. 그리하여 그에 依하여 自己와 正反對 物되는 本質에 到達한다. 絶對理念은 自然에 到達한다. 이리하여 全 論理學은 自己에 對한 絶對理念이 無이며 또 自然 畧이 엇더한 것이라는 것을 說明하려는 것이다.